

돈 문제 뿐일까... 공범은 없나...

■ '네 모녀 피살' 풀리지 않는 의혹 범행 잔혹한데 알리바이는 허술 나머지 7천만원은 어디로 갔나

서울 마포구 장전동 김모(45·여) 씨 일가족 4명 피살사건은 11일 채권·채무 관계에 얽힌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41)씨의 범행으로 사실상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용의자인 이씨가 자살하는 바람에 범행의 정확한 원인은 영원히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제시해본다.

◇정말 공범 없었나=경찰은 이번 범행에 이씨 외에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신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아파트의 CCTV를 통해 실종 당일인 지난달 18일 밤 김씨의 집에서 대형 여행가방을 실어나른 남성과, 이를 뒤인 20일 오후 김씨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우고 달아난 남성을 확인했지만 이들이 동일인물인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약간 풍뎡하고 체격이 큰 편인데 20일 주차장에서 달아남은 호리호리한 체격"이라며 "두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계속 분석중이다"고 말했다.

김씨 모녀가 살해되는 시기를 전후해 이씨 손에 넘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범행 이틀날 광주로 내려가 채권자 이모(여)씨를 통해 자신의 형과 관련된 법인 통장에 5천만원을 입금하게 했고, 채권자 이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이 통장에 5천만원을 입금해준 뒤 이 중 4천만원은 경기도 일산에 사는 차모(여)씨에게 전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오전 전남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김민호 강력계장이 서울 마포구 김모씨 일가족 시신 발굴 과정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씨가 복잡한 과정으로 1억원을 나눠 지인들에게 전달한 이유와 목적도 불분명하지만 나머지 7천만원의 행방은 완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씨의 복잡한 사생활과 돈관계=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차모씨와 함께 지냈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씨는 피해자 김씨와 재혼 담이 알려질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데 와중에도 또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 사건 이후 이씨와 두 차려나 만나 이씨의 형과 차씨에게 대신 돈을 입금해준 40대 여성 이모씨의 존재와 역할도 오리무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잔혹성=이씨는

실종사건 당일 김씨와 두 딸을 살해하고 뒤이어 큰 딸까지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시신발굴 결과 이들이 집에서 한꺼번에 변을 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씨가 '빛 독촉'을 하던 김씨에게 양심을 품었다고 해서 굳이 어린 딸들까지 한꺼번에 살해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이씨는 범행 뒤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 대담하게 서울 도심으로 진입해 당시 외출했던 큰 딸까지 찾아 나서는 집요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씨는 김씨 일가족이 실종될 경우 가장 먼저 의심받을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텐데도 정작 자신의 알리바이는 만들지 않았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초동·공조수사 '엉망'

전면 수색 못하고 시민 제보로 시신 찾아

서울 마포구 김모(45·여)씨 일가족 실종사건이 전원 피살이라는 비극으로 마무리 되면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와 초동수사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과 화순경찰은 실종된 김씨의 큰 딸 휴대전화 기록이 실종 다음날인 19일 새벽 5시에 화순군 남면 일대에서 감지된 점으로 미뤄 실종 가족이 화순에 온 것으로 추정하고, 이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 마포서 강력팀 직원 11명만이 지난 9일부터 화순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였을 뿐 공조수사에 따른 전면적인 수색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화순경찰은 지난 9일 관내에서 실종자의 휴대전화 신호가 감지됐고, 용의자가 탄 차량이 전남지역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알 정도로 공조수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경찰청은 뒤늦게 지난 9일 공조수사 요청공문을 통해 '미귀가자 발견을 위한 검문검색과 첩보수집에

만전을 기해주고, 목격자나 단서가 발견될 경우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서울경찰청은 또 휴대전화 감지된 기지국 주변 수색이나 이씨 부친 묘 등에 대한 수색요청을 전혀 하지 않은 대신, '나서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주체인 서울 마포경찰청은 화순군 일대에서 독자적인 수색작업을 벌일 뿐 공조 수사에 따른 전면적인 수색요청을 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 일가족은 지난 10일 밤 수색장소 인근에서 모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또한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가 없었으면 시신을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화순경찰 관계자는 "협조요청을 미리 해왔더라면 관내 도로 CCTV 녹화데이터의 분석은 물론,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일 수 있었다"며 "하지만 화순에 내려온 마포경찰 관계자들은 수색 중이었는데 연락도 닿지 않고 공조 요청도 없어 우리가 나서서 수색하기는 곤란한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이씨 소름 돋을 정도로 태연했다"

■ 암매장 신고 유모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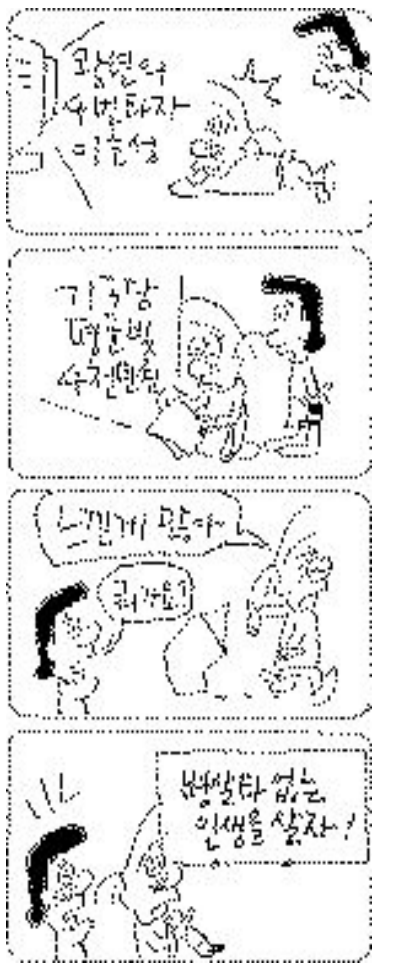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호성씨의 행동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김모씨와 세 딸 등 일가족 4명의 화순 암매장 위치를 경찰에 제보했던 유모(46·화순군·사진)씨는 이틀 모녀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씨를 만난 순간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11일 오전 화순군 화순읍의 한 건설현장에서 만난 유씨는 자신이 봤던 구멍이 일가족의 시신이 묻혀있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듯 초췌한 표정이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유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30분께 다른 인부 2명과 함께 화순읍 K병원 앞에서 이씨를 만났다. 유씨는 '공원묘지에 표시석을 세운다'며 화순읍의 한 근로자 대기소에 인부 3명을 보내달라고 의뢰했다. 유씨 등은 이씨와 함께 인근 철물점에 들려 삼 2개와 팽이 1개, 곡괭이 1개를 산 뒤, 이씨의 차를 뒤따라 화순군 동면 모 교회 공원묘지로 향했다. 이호성씨는 삽질을 하던 유씨에게



나이 든 사람보다 일을 더 못하는 것 같다. 점심 전에 일을 끝내고 빨리 내려가자'고 웃으며 농담까지 했다. 유씨는 당 시 상황을 전했다. 유씨는 "당시 '이호성 선수가 아니냐'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안 물어보길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은 미궁에 묻힐 뻔한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제보를 해준 유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 제넨메디노기과원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원통 (062) 233-5119

나원침 (7455) 김중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만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광원 : 061) 337-0571

'엽기 시의원' 동료 귀 물어 뜯어
○광양시의원 이자매결연을 맺은 포항시의원과의 연찬회 도중 술에 취해 동료 의원의 귀를 물어 뜯는 엽기적인 일이 발생.
○11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P(57)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 수련관에서 포항시 의원들과 만찬을 갖는 자리에서 광양시의회 J(61) 의원의 왼쪽 귀를 물어 뜯었다는 것.
○J의원은 귀에서 피를 흘려 곧바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P 의원은 J 의원에게 사과.
○이에 대해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광양시의회는 의장의 면세유 불법유통에 이어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비난. /광양=김중호기자 chkim@

3년전 동업자 실종 재수사

이씨, 김씨 남편 자살 개입 의혹도

자 모집에 나섰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 무렵 이씨가 추진 중인 순천 경마장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조씨는 이날 이씨를 만난 뒤 친구·아내와 통화를 한 뒤 3년째 연락이 끊겼다. 마치 막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장소는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부근이었다.

조씨가 이씨를 만나러 나간 지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조씨의 부인 H(33)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다. 경찰은 조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이씨 등 20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했으나 조씨가 채무 문제를 고민했다는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잠적한 것으로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부인 H씨는 최근 모녀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이씨가 지목되자 남편의 실종에도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H씨는 "늦게나마 남편 실종사건에 대해 수사가 재개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번엔 세 딸과 함께 피살된 김씨의 전 남편은 지난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가 전 남편이 숨지기 5개월 전에 이미 이씨와 알고 지냈고, 남편의 자살 이후 두 사람이 곧바로 결혼할 사이라고 주위 사람에게 얘기한 것을 감안하면 이씨가 이 사건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주) 조이트레블
광주광역시 서구 동명로 1가 12번지 201호
대표 전화 (062) 234-3222
309,000
319,000
359,000
399,000
520,000
569,000

황산위에서 399,000 이상부터 특가!
강력추천! 중국 황산(黃山) 여행!!
삼대 / 황후 / 황산(黃山) / 서명 5일 689,000
왕산위에서의 하룻밤!! 649,000